

- 信 바르게 믿고
- 解 바르게 알고
- 行 바르게 실천하고
- 證 바르게 깨닫자



金剛會報



金剛禪院 <http://www.geumgang.org> E-mail: keumgang-sw@hanmail.net

불기2559년(서기2015년) 10월 25일 (일요일) [제119호]

발행처 :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 발행인 : 혜거스님(안동수) / 발행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82길 11 삼우빌딩 405호(135-243) / 편집 : 금강선원 편집부 / TEL : 445-8484 FAX : 445-8043 / 등록번호 : 서울라-10888



지난 2014년 수륙대재 중에서

탄허기념박물관 개관 5주년 기념법회 및 수륙대재 봉행

11월 21일(토) 오전 10시 30분 기념법회, 오후 1시 수륙대재

금강선원은 탄허기념박물관 개관 5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11월 21일(토) 오전 10시 30분 기념 법회와 오후 1시 수륙대재를 봉행합니다.

탄허기념박물관은 역경과 인재육성에 큰 자취를 남긴 탄허대종사의 큰 뜻을 이어가기 위해 금강선원 신도와 혜거 큰스님의 원력으로 지난 2010년 건립되었습니다.

한 나라와도 바꾸지 않을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탄허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시작한 불사인 만큼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기능 이외에 학술강좌와 스님들의 교육,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문화의 장

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혜거스님께서는 “교육기관은 지식을 쌓는 역할을 하고, 종교는 그 지식을 인격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종교와 교육이 상호 보완할 때 우리 사회는 향상되고 발전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탄허기념박물관이 앞으로 더욱 개개인의 인격 수양과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실천적 공간이 되길 발원합니다.

아울러 이날 오후 1시부터 물과 물에서 해매는 외로운 영혼을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불교의례인 수륙대재를 봉행합니다.

수륙대재 7일기도는 11월 15일(일) 오전 10시 30분 금강선원 대법당에서 입재하여 6일동안 기도 정진한 후 11월 21일(토) 탄허기념박물관 보광명전에서 회향합니다. 매일 정근으로 정진하면서 선망부모와 조상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공덕이 베풀어지기를 함께 발원합니다. 뜻 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륙대재 7일기도

입 재 : 11월 15일(일) 오전 10시 30분
금강선원 대법당
회 향 : 11월 21일(토) 오후 1시
탄허기념박물관 보광명전

2016학년도 수능 시험일 기도

11월 12일(목) 오전 8시 40분

오는 11월 12일(목) 오전 8시40분 부터 6층 기도법당에서 수능 시험일 기도가 진행됩니다.

100일 동안 한마음으로 기도한 수능 100일 기도는 11월 11일(수)에 회향한 후, 시험일 당일에는 시험 시간표에 맞춰 수험생이 그동안 쌓은 실력을 잘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험생과 한마음이 되어 기도합니다.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들뿐 아니라 인연 있는 분들께서는 같이 동참하시어 원력을 보태어 주시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소원성취 100일기도 입재

11월 18일(수) 오전 9시 20분

오는 11월 18일(수) 오전 9시 20분 6층 기도법당에서 소원성취 100일기도를 입재합니다.

이 기도는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대학 합격과 아울러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간절한 원이 있는 분들을 위한 성취 기도입니다. 매일 오전 청비스님과 함께 100일 동안 정진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동안거 결제

금강선원에서는 불가의 전통에 따라 오는 11월 26일(목)부터 3개월 동안 동안거 결제에 들어갑니다.

동안거는 불교수행자들이 집중적인 참선수행을 통해 업장소멸과 견성성불을 이루기 위해 겨울철 세 달 동안 한 곳에서 머물며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선은 자신을 깨닫는 방법이며 업장소멸과 견성성불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금강경독송 집중정진

▶ 일 시 : 매일 넷째주 토요일 밤 7:30~10:30
▶ 장 소 : 대법당

2015년 하반기 수계식

올바른 수행자로 거듭나는 금강선원 수계식은 전통적인 의식에 따라 여법하게 이루어지며 혜거 큰스님께서 면담하신 후 직접 불명과 계송을 지어주시는 특별한 수계식입니다. 수희 동참하셔서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 ▶ 일 시 : 2015년 11월 29일(일) 오후 1시 30분
- ▶ 장 소 : 금강선원 대법당
- ▶ 수계비 : 20만원

2015년 승려연수교육 수료



승려연수교육을 수료한 후 혜거 큰스님과 함께 한 단체사진

지난 9월 24일(목) 오후 8시 40분 대법당에서

2015년 승려연수교육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6번째 강의까지 모두 마친 후 이어진 수료식은 승려연수교육을 수료한 스님들에 대한 수료증 수여 및 단체사진 촬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8월 20일(목)부터 6주간 진행된 2015년 승려연수교육 『임제록』 강의는 금강선원이 조계종 교육인증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이래 2번째로 진행한 승려교육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을 순례법회, 백담사에 달다



극락보전 앞에서 함께 한 금강선원 불자들

지난 10월 21일(수) 금강선원 불자들은 백담사로 순례법회를 다녀왔습니다. 오전 7시 서울을 출발하여 도

착한 백담사는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인 가을을 품고 있었습니다. 완연한 가을을 보고 느끼며 불자들은 모두 목조 아미타불좌상을 비롯한 삼존불이 모셔진 극락보전에서 여법하게 사시예불을 올렸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이면 전국의 아름다운 사찰을 순례하며 각 사찰들이 담고 있는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을 보고 듣고 배우는 귀한 시간들. 그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백담사를 뒤로 하고 서울로 오는 길에 만해마을에도 들러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을, 그 속으로 걸어갔던 귀한 하루였습니다.

청소년 집중명상 심화반 개강



청소년 집중명상 심화반 수업중에서

지난 9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청소년 참선 심화반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심화반은 기초참선반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훈련하는 상위 과정으로서, 기초참선반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집중명상과 이완명상 수업 및 전두엽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핵심노트(교과중에 중요한 내용을 메모한 노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핵심노트를 통해 학교 성적의 향상을 기대합니다. 그 외 파라미타 연합회 활동이나 도슨트 활동, 뇌과학 동아리 등의 활동도 병행합니다.

또한 한 달에 1회 혜거 큰스님의 법문도 있을 예정입니다.

박물관 단신



봉사활동하는 청소년들

지난 10월 3일(토) 오후 2시, Dovol(두볼)-1365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하는 자원봉사 활동 사이트를 통해 탄허기념박물관 자원봉사를 지원한 4명의 학생들이 박물관에서 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박물관 교육사의 전시 해설과 전시 해설 시나리오를 읽고 방문객 관람안내, 박물관 건물 환경미화활동 및 비품 정리 도움 등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꾸준한 봉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박물관 특별교실 1기 '스스로 빛나는 별' 졸업식

수서 경찰서의 요청으로 진행된 특별교실 '스스로 빛나는 별'의 졸업식이 지난 10월 4일(일) 보광명전에서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 교육기간동안 노력하였습니다.

대왕파출소 방문

지난 10월 8일(목) 박물관에서 수서 경찰서 대왕파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대왕 파출소 소장님께서는 참선반을 훌륭히 이끌어주신 부관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며 앞으로도 박물관 인근의 순찰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면담중인 부관장님

박물관 소식

□ 2015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응답하라1959'
교육기간 : 3월~10월
교육시간 : 화요일~금요일 오전10:00~14:20/오후14:00~16:20
교육대상 : 초·중·고등학생 단체 (30명 내외),
※문화가 있는 날은 가족단위 참여가능
신청방법 : <http://www.museumonroad.org>

-10월1일:대치중학교(길위의 인문학)
-10월2일:동명중학교(길위의 인문학)
-10월4일:금강경 강송대회 심사위원 회의
-10월5~6일:참선반
-10월15일:신길중학교(길위의 인문학)
-10월17일:제5회 금강경강송대회

□ 연중진행 프로그램
- 문화가 있는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관람안내 및 오시는 길

- ▶ 관람시간 10:30~17:00 (입장마감 16:30)
- ▶ 관람료 무료
- ▶ 휴관일 월요일 (공휴일 익일, 명절 연휴 휴관)
- ▶ 교통편 지하철 3호선, 분당선
수서역 6번출구 도보 15분
 시내버스 402, 4419, 2412 (쟁골마을 하차)
 마을버스 강남03, 강남06, 강남06-1 (쟁골마을 하차)



서 문 (序文)

『원각경 서문』 강설 ⑦



한 해 동안 힘써 노력한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참으로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여름태양과 비바람을 견디고 쉼 없이 노력해서 얻는 농부의 가을걷이는 인내하고 기다린 결과이고 자연의 보답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을 쉽게 얻을 수 있고 또한 쉽게 버리는 것에 익숙해 있는데 이런 생활방식은 편리함만을 생각할 때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느리게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정신적 풍요와 안정을 생각할 때에는 결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 한술을 먹더라도 겸손한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작은 곡식 한 톨에 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노고를 생각해서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풍요한 가운데에도 건실하게 살면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시고 같이 행복하게 하는 보살행을 항상 실천해야겠습니다.

現受用身하사 주伴이 同會하시니
曼殊大士는 創問本起之因하시거늘
薄伽至尊이 首提究竟之果하야
수용신을 나타냄에 주객이 함께하시니

만수대사는 본기의 인연을 처음으로 물었고 박가지존은 맨 처음 구경의 과를 들었다.

현수용신現受用身하사. 수용신을 드러내어. 수용신은 삼매 속 실보토에서 보살이 바라밀을 수행하고 서원이 완성되고 그 선근의 과보로 완전하고 원만한 부처님이 되시는데 이 부처님이 수용신이고 보신불입니다.

이 수용신은 자수용신과 타수용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수용신은 수행으로 얻어진 불과를 스스로 즐기는 불신이고, 타수용신은 깨우침의 보과와 훌륭한 법문을 다른 사람에게 지도하고 교화하기를 즐기는 불신입니다.

주반主伴이 동회同會하시니. 주인과 객이 한자리에 모이시니. 부처님이 수용신으로 중생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만수대사曼殊大士가 창문본기지인 創問本起之因하시거늘. 문수보살이 처음으로 어떻게 수행하셔서 성불하셨냐고 방법을 물으니. 만수대사는 문수보살이고, 중국에서는 보살을 대사로도 합니다. 본기는 본래 생겨 일어난 것이고 인연은 인지因地로 보살의 수행이 아직 부처가 되기 전의 단계입니다.

박가지존薄伽至尊이 수제구경지와 首提究竟之果하야. 박가지존이 첫 번째로 구경의 결과를 제시해 주셨다. 박가지존은 부처님이시고, 구경의 과는 바로 열반 자리입니다.

원각경게송 첫 번째 문수보살장에 ‘일체제여래 종어본인지 개이지혜각 요달어무명...’ 우리 선원식구들이 모두 잘 외우고 있는데 오늘 강의를 계기로 분명히 이해가 되실 줄로 생각합니다

니다.

이 글을 정리하면, 부처님께서 수용신으로 나타내시어 대중과 함께하시니 문수보살이 처음으로 어떻게 수행하셔서 성불하셨는지 묻자 부처님께서 구경의 열반을 처음으로 제시해주셨다는 뜻입니다.

漸은 設五時之異하사 空有를 迭彰하시고
頓은 無二諦之殊하사 幽靈이 絕待하시니
이 진체를 비추면 저 몽형이 사라지고
아와 인이 없음을 알면 그 누가 윤회를 받겠는가?

조사진체照斯眞體하면 멸파몽형滅彼夢形하며. 이 진체를 비추면 저 꿈속의 모습이 없어지고. 진체란 진법체이고 영원불멸한 진리의 본체입니다. 몽형은 꿈을 꾸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는 온갖 번뇌 망상도 이것입니다. 진리만을 탐구하는데 헛된 망상은 저절로 없어지겠지요?

지무아인知無我人하면 수수륜전誰受輪轉이리오. 아我和 인이 없는 줄 알면 누가 생사윤회를 받겠는가. 즉 아상과 인상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어느 누가 윤회의 바퀴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상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에 인류평화나 세상 구제를 기원하시나요? 거의 부모 자식 잘되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아상인데 어떻게 쉽게 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도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를 던져 버릴 줄 알아야 아가 끊어지게 되고, 시비 차별심이 끊어져야 보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이 진리의 본체를 비취

보면 저 헛된 망상이 없어지고 아상과 인상이 없음을 안다면 누가 생사윤회를 받아들이겠는가. 즉 윤회를 벗어나고자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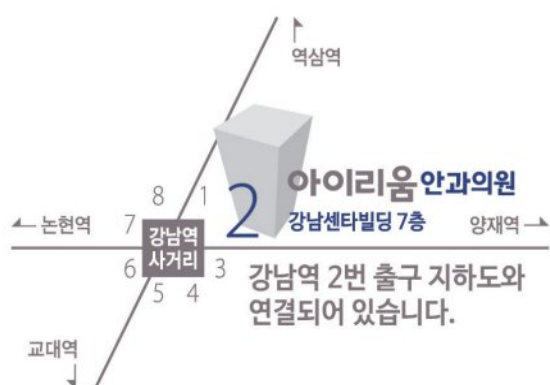
種種幻化 生於覺心하니
幻盡覺圓하면 心通法遍하리라
갓가지 환화는 각심에서 나오니
환이 다하면 각이 원만하고 마음이 통하면 법이 두루 하리라.

종종환화種種幻化 생어각심生於覺心하니. 가지가지 환상이 각심에서 생기니. 각심은 부처님 마음인데 그 부처님 마음은 여러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제대로 쓰지 않으니 거기에서 환상을 만들어 내지요. 환진각원幻盡覺圓하면 심통법편心通法遍하리라. 환이 다하여 각이 원만해지면 마음에 만법이 두루 관통하리라. 환이 다한다는 것은 환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인데, 그 순간 각이 나와요. 각이 뚜렷해지면 마음이 통달되고 그러고 나면 이 세상 가는 데마다 법이지요.

그런데 이렇지 않을 때에는 가는 데마다 위법뿐이거든요. 정말로 위법 없이 법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세상이 오게 하려면 환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통달하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 근심 걱정 없는 세상이 됩니다. 이런 도리를 가르친 경전이 원각경입니다.

이 문장을 정리해보면, 갓가지 환화가 여러분의 마음 부처님자리에서 생기는데 이 망상 환화가 다하여 없어지면 깨달음도 원만해져서 마음에 시방 세계 모든 것에 두루 통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의료광고 의료광고심의필 제 141212-중-66396호



진료내용
백내장 수술
노안교정
라식·라섹 수술
렌즈삽입술

보여주는안과
EYE REUM 아이리움안과의원

아이리움안과의원 과 상담하세요.

상담·예약 | 02)3420-202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 (역삼동 825-13) 강남센터빌딩 7층 아이리움안과
진료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전 문화축제로 거듭난 제5회 금강경강송대회

지난 10월 17일(토) 탄허기념박물관 보광명전에서 제5회 금강경강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동희스님의 집전으로 식전행사인 순당의례가 진행되었고 이어서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으로 개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혜거 큰스님의 지정분 추천 (4,12,23,26,31분)과 함께 1차 필기시험(외워쓰기)이 시작되었고, 11시부터 3인의 심사위원들(스님들과 역대 수상자) 앞에서 제시되는 분(分)을 암송하는 2차 암송시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오후에는 단체부문과 개인부문 결선, 수행수기 발표 그리고 시상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단체부문은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부분으로 총 19팀이 참가하여 겨루었는데, 각 팀별로 독특하고 참신한 합송을 보여주어 대회 참가자와 참관대중들 모두 금강경을 함께 즐기고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개인부문 결선(10명)은 혜거 큰스님을 비롯한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결선진출자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이어진 수행수기 우수작(강정임,고광권) 발표를 끝으로 시험일정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경과보고(문광스님)와 심사위원장(지안스님)의 심사평에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대상(조계종 총무원장상) 정재선님(법명:경덕)을 비롯하여 각 부문별(개인부문, 학생부문, 단체부문)로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장려상 등에 대한 상상이 있었고, 특히 학생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은 어린이(서울고대부초5)는 최연소자로 응시하여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시상식을 마친 후 법상스님의 격려사에 이어 성우스님, 박원순 서울특별시시장(동영상), 신연희 강남구청장, 전창렬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의 축사가 있었고, 대회장이신 혜거 큰스님께서는 대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인사말씀에서 “부처님께서 1250명 제자들에게 설하셨던 것처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1250명이 금강경을 다 외워 금강경강송대회를 열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제5회 금강경강송대회는 총 248명이 접수한 가운데 학생부문을 포함하여 개인부문 72명, 단체부문 19팀(162명)이 응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포교원 등 기존 후원처 외에 서울특별시의 후원으로 불교계에 국한되지 않는 범국민적 대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고, 단체부문의 신설로 금강경과 더불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경전 문화축제로 발돋움하는 뜻 깊은 대회가 되었습니다.

제5회 금강경강송대회 수상자

개인부문(16명) ▶대상(조계종 총무원장 1000만원)-정재선(경덕) ▶최우수상(심사위원장 300만원)-장왕식(정향) ▶우수상(불교TV 회장 100만원)-남시우(법해) ▶우수상(불교신문 사장 100만원)-최미란(자심행) ▶우수상(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100만원)-정진용(무무) ▶우수상(탄허불교문화재단이사장100만원)-고광권(정경) ▶특별상(서울특별시시장 50만원)-신홍식(원광) ▶특별상(강남구청장 50만원)-정일순(대성각) ▶장려상(탄허기념박물관장상 각10만원)-안희숙,정경희,서래심,양재순, 권창중,유연옥, 조현춘,이정길

학생부문(4명) ▶최우수상(탄허불교문화재단이사장 50만원)-이은(초5) ▶우수상(탄허불교문화재단이사장 30만원)-장태호(중2) ▶특별상(서울특별시시장 20만원)-송윤서(중1) ▶특별상(강남구청장 20만원)-노경석(중3)

단체부문(7팀) ▶우수상(탄허불교문화재단이사장 각100만원)-대치1선동정수가가합창단 ▶특별상(서울특별시시장 50만원)-가사체 한글 금강경 서울독송회 ▶특별상(강남구청장 50만원)-수서경찰서 경승실 ▶장려상(탄허기념박물관장 각20만원)-금강걸스, 선재팀



2차 암송시험 전경



혜거 큰스님과 순당의례를 집전하시는 동희스님



제5회 금강경강송대회 개회식 전경



암송시험에 임하고 있는 학생부문 참가자



1차 필기시험(외워쓰기)이 시작되고



가사체 한글 서울독송회의 합송



금강경독송회의 합송



단체부문 합송의 대미를 장식한 가사합창단



우수한 성적으로 결선에 진출한 10명의 참가자들



혜거 큰스님의 질문에 답하는 결선진출자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정수팀



대상을 수상한 정재선님

개인부문 대상



정재선
(법명경덕, 60)

15년 전 쯤 형님으로부터 천수경을 외우면 좋다는 말씀을 듣고 천수경을 외우고, 어릴 적 원불교에 다닐 때 조금 배웠던 금강경을 다시 한 분(分)씩 읽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진주 같은 내용이 줄줄이 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외우기로 마음을 정하고 1주일 정도 되었는데 경 전체를 완전히 독파했지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에도 경을 외

우면서 다녔습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을 외우고 ‘보시를 해야 한다. 나의 상을 잘 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경을 읽어가던 어느 순간, 내면속에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則見如來’ 밖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밖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이 허망하여 참된 것이 아니라고 보면 곧 여래를 보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일체존재 그 자체가 허망한 것이 아니라 존재를 인식하는 방법과 수단이 모두 허망하다는 뜻으로, 허망함 자체가 일체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참 모습에 부응하지 못하다는 것이므로 문제는 나 자신에

있는 것이지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것이고, 금강경의 가르침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을 여의어서 궁극에는 ‘應無所住 而生其心’ 하고, 투철히 관(觀)하면서 일체중생과 함께 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인적인 천안(天眼)을 넘어서 근본지(根本智)를 이루어 자신과 일체법이 공함을 통찰하고, 後得智(분별지)를 체득한 법안으로 일체존재의 낱알의 차이를 알아 법을 설하고 중생을 구제하면서 부처님처럼 일체지를 득하여 마침내 무상정등각을 이루라는 가르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위와 무위를 오르내리는 부처님과 수보리존자와의 문답에 황홀감이 넘쳐 날 암송하고 다녔는데, 올해 7월 초에 금강경 강송대회가 탄허기념박물관에서 개최된다는 불교신문 광고를 보고

그 날 이후 하루 2회씩 사경하고 독송 연습을 본격적으로 하였습니다. 나의 공부가 다른 불자님들 수준과 견주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가능해보기로 하는 좋은 기회라 여기면서...

결선에서 헤거 큰스님께서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금강경 각 분(分)의 핵심내용과 그 뜻을 설명해보고 또 그 뜻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강경 각 분(分)의 핵심내용을 내 주변에 얼마나 이행하는지 저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그 큰 대상이 제게 내려졌습니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여 그 근본 뜻을 확실히 깨달아 일체중생과 더불어 늘 함께하면서 살라는 뜻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부문 최우수상



이 은
(서울교대부초 5)

제가 이번 금강경강송대회에 나가게 된 것은 큰고모님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회에 참가할 것을 결심하고 큰고모로부터 처음 금강경 독송집을 받았을 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기에도 어려운 글자들을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할머니댁에 갔을 때 할머니께서 불교 경전을 읽으시는 것을 보아서인지 일단 한번 도전해보기로 하였고, 큰고모도 저에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제 방식으로 한번 외워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촌누나도 함께 참가해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대회 시작하기 2주 전부터 누나와 함께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학생부 지정분(1,7,12,17,31분) 중 제1분 법회인유분 부터 차례대로 읽었습니다. 큰소리로 계속 말하면서 외우다 보니 신기하게도 머릿속에서 글자들이 떠오르며 암송이 되었습니다. 소리 내어 외울 때도 쓰는 것을 생각해

서 외우고, 띄어 쓰는 부분도 생각하면서 외웠습니다. 가방에 작은 경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학원 갈 때나 올 때 틈나는 대로 두 문장씩 반복해서 외우고 누나랑 전화로 통화하면서 외워보기도 하였습니다.

주말에는 큰고모댁으로 가서 누나와 함께 각 분마다 한 문장씩 번갈아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더 재미있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외우면서도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책에 있는 해설과 큰고모의 설명으로 아주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금강경강송대회일, 처음 느껴보는 엄숙한 분위기 때문에 조금 떨리고 긴장되었지만 첫 시험인 필기시험(외워쓰기)을 무사히 잘 마쳤고, 스님들 앞에서 암송하는 암송시험에는 더 많이 떨렸지만 심사하시는 스님들께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격려해주셔서 용기를 내어 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금강경강송대회를 위해 더 많은 준비를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좋은 상을 받아서 너무나 열렬했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 대회를 위해 누나와 준비한 시간들도 재미있었고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금강경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무작정 외웠던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날의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색다른 경험이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단체부문 우수상



대치1선동팀

금강경강송대회에 단체부문이 신설된다는 공지를 듣고, 우리 대치선동 식구들은 당연히 참가하기로 했다. 도반이 된 지 오래라서 ‘척하면 척’ 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보살들과 새로 선등에 가입한 보살들을 제외한 모두가 참가하였다. 목탁은 리더쉽있고 책임감 강한 동진성 보살이 맡아주니 준비완료~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었다.

연습은 수, 금요일 경전강의가 끝나고 하였는데 합송을 해보니 처음엔 소리가 제각각이었다. 한글로 번역된 것도 읽어 보고 집에서도 반복해서 읽었다. 아무리 다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책을 보고 또 보며 내용을 숙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습효과가 조금씩 나타났고 우리는 하나의 목소리로 합송해 나갔다. 망설이던 보살들도 성취감을 느끼며 환희심이 생겨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니 실력도 일취월장, 합심으로 인한 단합이 느껴졌다. 특히 제32분 응화비진분을 암송할 때면 환희심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특별한 장기를 가지고 참가하는 팀들이 많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으나 우리는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classical하게 우리 스타일대로 하자고 서로 격려하면서 연습했다. 제한시간 3분 내에 합송해야 하므로 시간을 재어가며 끝날 때의 느낌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입장과 퇴장 등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연습 과정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여 연습했으며 결정되는 것에는 모두가 결정에 따랐다. 그 모든 과정에서 아무도 기분 나빠하거나 섭섭해 하는 일이 없었다. ‘아, 무아(無我)가 이런 건가 보다. 수보리 존자의 무쟁삼매가 이런 건가 보다.’ 라고 느끼며 우리가 하나 뒀에 감동하였고 행복했다.

드디어 10월 17일 제5회 금강경강송대회! 우리 팀 차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큰 소리로 암송했다. 시작과 동시에 순식간에 끝난 느낌. 이때 우레와 같은 박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감사함에 가슴이 벅찼다.

참가한 다른 팀들도 각 팀마다 개성을 발휘하여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특히 노보살님들의 모습에서는 존경심과 더불어 몇 년 뒤의 우리 모습을 보았고, 가가합창단의 금강경 합송은 우리를 황홀하게 했다. 금강선원 아니 우리나라 불교계의 커다란 축제였다. 참가자와 참관대중 모두가 하나 되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헤거 큰스님! 곳곳에서 불자들이 금강경을 외우고 있어서 뿌듯하셨지요? 저희들에게 금강경 외우기를 독려하시며 이런 축제를 마련해 주시니 참가한 것만으로도 더 단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게 해주신 헤거 큰스님! 감사합니다.

글 / 금강지(대치1선동팀)



성격은 타고 나는 것일까?

우리는 흔히 “다른 건 흠쳐도 씨 도둑 짚은 못하지” 라는 표현을 하고, 가족이나 친구들의 성격을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구를 닮았을까?” 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의 유전성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산다.

그런데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람과 아이들에게 유전자를 물려준 사람이 보통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닮았다’ 는 것 자체로는 성격의 유전성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유전학의 발달로 소위 ‘맞춤 암치료’ 가 가능한 요즘에도 약 2만 5천 개로 추정되는 유전자들 중 몇 번째 유전자들이 어떻게 섞여서 성격의 어떤 면을 결정지어 준다고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성격의 유전성을 밝히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연구방법은 유전성이 강한 생리현상들 특히 대뇌활동이나 뇌 호르몬이 성격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최소한 성격의 가장 기본적인 성향 몇 가지는 생리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기본 성향 중 대표적인 것이 내향성과 외향성이다. 대뇌피질이 얼마나 쉽게 흥분(각성)되는지에 따라 내향성과 외향성이 결정된다고 한다. 배가 너무 고파도 또 너무 불려도 불편한 것처럼 뇌의 흥분(각성)상태도 너무 낮거나 높으면 편안하지 않은 까닭에 자신도 모르게 흥분상태를 적당한 방향으로 조절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향성인 사람의 대뇌피질은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흥분되는 까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소음이 많은 곳에는 가고 싶어 하지도 않지만, 가게 되어도 곧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일반적으로 자극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을 취한다.

반면 외향성인 사람의 대뇌피질은 많은 자극을 받아야만 적당한 각성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자극적인 환경(낯선 사람을 많이 만나는 모임 등)에 끌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리더가 되고 싶어한다.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잘 걸고 대화도 잘 이끌어 나갈 뿐 아니라, 즐겨서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상대 하고 사교적인 성격을 필요로 하는 세일즈나 서비스업 같은 직종에 적격이다.

내향적인 사람들을 ‘입이 무겁고 차

분하다’ 는 식으로 잘 봐주는 동양적 시선과 달리 미국에서는 ‘활달하고 친절함’ 외향성을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최근 내향성의 강점이 재평가 받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내향적인 사람들은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을 할 때도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치밀하고 끈기 있게 끌고 나간다는 연구 결과 때문이다.

반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대신 외향성들은 긴급한 사태에 처했을 때 놀랍게도 ‘차분함’ 모습으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내향성들보다 우수하다고 한다, 내향성의 대뇌피질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흥분상태가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며 그 때문에 인지작용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결국 어떤 성격이 좋나 나쁘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심본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력분배가 필요하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나는 내향성일 때도 있고 외향성일 때도 있는데 어디에 속할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자신이 어떤 식으로 피로를 푸는가를 보면 어떤 성향을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뒤에 내향성이 강한 사람은 친한 친구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도 집에 와서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비로소 피로가 풀리는 걸 느낀다. 반면 외향성이 강한 사람은 만남없이 집으로 바로 가면 피로감을 더 느끼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병이 날 수도 있다.

뇌 연구를 통해 드러난 두 번째의 기본성향은 정서적 불안증이다. 선천적으로 정서불안증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생리적 특징을 보이는데, 특히 대뇌의 정서 조절센터가 쉽게 흥분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정서센터는 스트레스에 관련된 정서 즉, 분노와 공포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며 때사가 걱정인 사람은 생리학적으로 ‘쉽게 불편해지는 뇌’ 를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태어난대로 살면서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심리치로도 효과적이나 참선을 배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길은 없을 것 같다.

글/ 우태옥(불명: 청량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Millersville 주립대 심리학과교수)

묵향(墨香)



荷風送香氣 750x400mm

얼마 전 중국에 다녀온 지인으로부터 묵향(墨香)에 젖어보라는 말과 함께 곱게 포장된 먹 한 개를 건네 받았습니다. 고운 향수를 음미하듯 포장지를 열기도 전에 코에 가져간 먹은 선선한 가을바람결을 타고 드는 열지도 질지도 않게 여름날 소나기 뿌리기 전 지나가는 바람이 땅을 흠치고 퍼뜨리는 내음이랄까! 개그콘서트 리얼 사운드 코너에서 폭죽 터지는 소리가 ‘펑’ 이 아니라 ‘애호으 피웃 스트 스트르’ 라고 하여 폭소를 자아내게 하듯이 딱히 묵향을 표현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큼니다.

문방사우 중에서 가장 만들기 어렵다는 먹은 식물성 기름이나 종유, 경유 그리고 소나무 송진을 태워 생기는 그을음과 동물 가죽이나 연골, 물고기 부레를 삶아 얻은 아교를 서로 짓이겨 만듭니다. 여기에 아교의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을 첨가하는데 고급일수록 사향 등 천연향을 쓰지만 일반적으로 인조 향을 첨가합니다. 하지만 향을 첨가하는 것은 노하우 중 노하우라 하니, 묵향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 제묵(製墨)의 시초는 2세기 초 후한(後漢) 때 각국이 한나라에 먹을 헌납했다는 기록이 「후한서」에 기

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나라 도종이가 지은 「철경록」에 고구려가 송연묵(松烟墨)을 당에 세공으로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 담징은 일본으로 건너가 제묵법(製墨法)을 전수함은 물론 현재 일본 왕실보물 창고인 정창원에 보관된 신라 먹 2점도 함께 가져 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최고 오래된 먹이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90년대 말 청주에 있는 고려 목판요에서 출토된 ‘단산오옥(丹山烏玉)’이라고 쓰인 조그마한 먹이 벼루와 달리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건 처음입니다. 단산오옥은 단양(옛 지명 丹山)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등에서 ‘가장 좋은 먹은 단산오옥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전국 여러 곳에서 먹을 만들었는데 서울의 먹골이나 목정동(墨井洞)도 과거 먹을 만들었던 사실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중국 북송시대 곽희(郭熙, 1020~1090)는 붓과 먹인 필묵에 대해 필은 사용하려면 하며 묵은 운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붓은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해야 하고 묵의 쓰임을 잘 운용해야 절묘함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그는 묵을 초(焦), 숙(宿), 퇴(退), 애(埃)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짙은 농도의 초묵과 벼루에 한동안 묵혀진 숙묵과 빛이 바랜 퇴묵, 그리고 숙묵과 퇴묵이 혼합된 애묵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만 먹의 변화에 대한 조화를 터득하여 올바른 수묵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처 입은 소나무 관솔을 그을음으로 하여 만든 송연묵(松烟墨)은 관솔 채취도 어렵고 양도 적어 만들기 어렵지만 선명한 광채를 내 뿜어 묵 중에서 가장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나를 태워 하나의 묵이 만들어지고 그 묵의 변화를 조화롭게 운용하여 펼쳐진 송연의 묵향이 신선한 가을바람을 타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계절이었으면 합니다.

글, 그림 / 담현 김외재(문인화가)

경전법회 안내

수요경전법회 금강경 야보송 매주(수)
금요경전법회 대승기신론 매주(금)
일요가족법회 탄허사상특강 매주(일)
▶모든 경전법회는 오전 10시30분입니다.

교육과정 안내

성인기초참선 매주(수) 오후19시 00분
청년불교대학 매주(토) 오후14시 00분
청소년참선(심화) 매주(토) 오전 10시
어린이명상학교 매주(일) 오전10시 30분
청년 10분 집중 행상지도과정 5월2일~12월 5일(토)오후2시

문화특강 안내

기초한자반 매주(금) 오후 1시
서예반 매주(월) 오후 2시
합창반 매주(금) 오후 1시
민요반 매주(금) 오후 1시

기도 안내

일년기도, 안등기도, 초하루기도, 초삼일기도
보름기도, 지장재일기도, 백중기도, 신년3일기도,
신년천도재, 입춘기도, 소원성취기도(수능백일 및
각종 개인 축원, 생일축원기도, 21일 소원성취기
도, 각종 백일기도)

제사 안내

49재 / 초재 막재 / 막재
기제사, 명절합동차례(설날, 추석), 천도재

큰스님 동정

11. 8 (일) 진관사 천독 다라니 법회 참석

선원 일정(10.29~11.30)

11. 1 (일) 일요법회 탄허사상 특강 49강
만수결 1500일 입재
11. 4 (수) 수요법회 금강경 야보송 29강
수요한문반 맹자진심장
11. 6 (금) 금요법회 대승기신론 17강
11. 8 (일) 일요법회 탄허사상 특강 50강
11.11(수) 수요법회 금강경 야보송 30강
수요한문반 맹자진심장
기초참선
백일기도 회향
아태포럼 47차 (오후 5시~7시)
11.12(목) 초하루 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기도
11.13(금) 금요법회 대승기신론 18강
11.15(일) 수륙대재 7일기도 입재(정근, 11월20일까지)
11.18(수) 수륙대재 7일기도
기초 참선
11.21(토) 탄허기념박물관 개관 5주년 기념법회 봉행
수륙대재 회향
11.22(일) 일요법회 탄허사상 특강 51강

11.25(수) 수요법회 금강경 야보송 32강
기초참선
아태포럼 48차
11.26(목) 보름기도
동안거 결제일
11.27(금) 금요법회 대승 기신론 20강
11.28(토) 금강경 독송 집중정진
11.29(일) 일요법회 탄허사상 특강 52강
수계법회 (오후 1시 30분)

혜거스님 강의 TAPE

금강경(육조주석).....35개
금강경(종경주석).....30개
금강경(야보송).....38개
육조단경.....46개
원각경.....33개
유식30송.....32개
일체유심조.....36개
선요.....33개
승만경.....24개
한산시.....16개
법화경약의.....5개
사성제품.....6개
초발심자경문.....11개
태고보우선어록.....15개
능엄경55위.....12개
반야심경.....4개
아마천궁계찬품.....7개

신심명.....8개
심우도.....5개
참나(좌선의).....8개
선가귀감(2013).....25개
서문.....26개
천수경.....12개

혜거스님 강의 CD

금강경(육조주석).....35장
금강경(종경주석).....30장
금강경(야보송).....38장
육조단경.....46장
원각경.....33장
유식30송.....32장
일체유심조.....36장
선요.....33장
천수경.....12장
능엄경55위.....12장
반야심경(달마해설).....15장
반야심경.....4장
신심명.....4장
태고어록.....12장
법성계.....5장
서문.....26장
맹자진심장(박완식교수).....45장
영가집 특강 (영가 현각선사의 문집) ...15장

☎ 문의 : 교무팀 02-445-8484

☎ 계좌 : 국민 474501-01-011180 금강선원

보시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시 금 | 박승배, 참선반, 무주상, 선혜심, 오준희, 강춘생

보 시 물 | 조영훈, 동명한의원(백진구), 엄성숙, 김윤곤, 장기팔

대중공양 | 천화당한의원, 손민규, 이혜주, 윤홍련, 무주상, 정재호, 김성준, 정화숙, 낙원떡집, 정소용영가

금강경강송대회 보시금 | 김진열, 김소민, 의학성, 대치 1 선등, 능지행, 김진원, 박병의, 진여심, 강복선등, 문명재, 무등등, 명원솔라에, 배태숙, 박무영, 백종민, 정건성, 진여심

신문보시금 | 심상원

대방광불화엄경 석경불사

신한은행 100-029-930686 예금주 금강선원
문 의 : 금강선원 불사팀 (02) 445-8484

화 엄 경 설 판

박 귀 옥
고 경 호
최 영 준
만 일 수 행 결 사 회

구 좌 동 참

1 - 9 2 8 김 종 한
1 - 9 2 9 이 계 경
1 - 9 3 0 신 재 요
1 - 9 4 1 최 성 원
1 - 9 4 2 서 경 식
1 - 9 4 4 오 동 훈
1 - 9 4 3 오 세 환
1 - 9 4 5 최 수 한

1 - 9 4 6 자 련
1 - 9 4 7 서 민 아
1 - 9 4 8 이 금 선
1 - 9 4 9 이 재 호
1 - 9 5 0 백 군 자
1 - 9 8 1 송 창 석
1 - 9 8 0 송 형 석
1 - 9 7 9 송 민 석
1 - 9 7 8 송 유 석
1 - 9 7 7 송 주 연
1 - 9 7 6 송 채 림
1 - 9 7 5 송 유 진
1 - 9 7 4 송 영 석
1 - 9 8 2 김 정 록

1 - 9 9 3 엄 성 숙
1 - 9 9 4 이 옥 자
1 - 9 9 5 유 민 지
1 - 9 9 6 김 보 현
1 - 9 9 7 이 은 동
1 - 9 9 8 수 관 음
1 - 9 9 9 이 준 희
1 - 1 0 0 0 나 승 신
1 - 1 0 0 1 이 재 정
1 - 1 0 0 9 유 아 정
1 - 1 0 0 8 정 경 아
1 - 1 0 0 7 유 민 성
1 - 1 0 0 6 유 경 곤
1 - 1 0 0 5 김 진 숙

1 - 1 0 0 4 유 병 길
1 - 1 0 1 0 강 정 미
1 - 1 0 0 3 한 완 상
1 - 1 0 1 1 정 찬 동
1 - 1 0 1 3 박 찬 후
1 - 1 0 1 2 박 하 영
1 - 1 0 1 4 백 부 강
1 - 1 0 1 5 당 세 옥
1 - 1 0 1 6 양 준 모
1 - 무 주 상 보 시
1-951 양 경 모 영 가
1-1002 무 주 상 보 시



수륙대재 봉행

탄허기념박물관 개관 5주년을 맞이하여
선망부모와 조상 그리고 유주무주 고향들
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수륙대재를 봉행
합니다. 뜻깊은 행사에 많은 불자님들의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5년 11월 21일(토) 오후 1시
- ▶ 장 소 : 탄허기념박물관 보광명전
- ▶ 기도동참금 10만원, 설판 100만원